



스포츠동아와 청춘스포츠가 1929(19~29세) 세대...



부산대학교 여자농구부의 돌풍을 이끈 이세린(왼쪽)과 이지우.

부산대 여자농구부 이세린-이지우

“프로 진출엔 미련 없어 친구 같은 체육교사 꿈” 전국체전 여자 일반부 준우승 주역

부산대학교여자농구부. 여자농구에 관심있는 팬들에게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팀이다.

체육교육과로 향한 후에도 이세린-이지우 선수의 기량은 남들과는 달랐다.

이정범 대학생 명예기자 ranstar1997@naver.com

편집 | 곽창일 기자 ico@donga.com

다시 뭉친 이용대-유연성 ‘환상 복식조의 귀환’

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 출전

국가대표 은퇴 후 13개월 만에 복식 호흡 이용대 “유소년 선수들 동기부여 됐으면” 유연성 “감회 새로워...팬들에 보답 차원”

전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 조가 다시 한 코트 위에 선다.

한국 배드민턴 톱클래스 복식조, 이용대(요넥스배드민턴단)와 유연성(수원시청)이 국가대표 은퇴 이후 국제대회에서 다시 한번 뭉친다.

이용대-유연성 조는 지난해까지 세계무대를 제패한 복식조였다.

배드민턴 팬들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에 아쉬움이 많았다.

국가대표 은퇴 후 1년여가 지나 이용대-유연성이 다시 한번 같은 코트 위에 서게 됐다.

변 같은 무대에 서기로 의기투합했다.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가기에 국내 선수로 출전 자격이 인정되어 출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용대와 유연성이 다시 뭉치기로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팬들이었다.

유연성은 “오랜만에 용대와 함께 코트에 서니 감회가 새롭다.

코리아마스터즈 대회는 전통적으로 한국 선수들이 강세를 보이는 대회다.

허보람 객원기자 hughandong@naver.com

▶ 2017 코리아마스터즈에서 국가대표 은퇴 후 13개월 만에 복식조로 호흡을 맞추는 이용대(오른쪽)-유연성.



“오빠, 축구하고 갈래요?” 꽃길싸커의 유혹

동아리서 운동부로 정식 창단...‘꽃길싸커20’ 유명세 쟁쟁한 객원 코치들 참여...아마추어대회서 승승장구

서울시립대 여자축구부 ‘WFC BETA’

“오빠! 오늘 학교 끝나고, 축구하러 갈래요?” 햇살이 조금씩 달아오르던 지난 5월,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불태우는 축구소녀들이 나타났다.

가진 것은 오직 열정 하나뿐인 축구소녀들이 2000년 K리그 신인왕 출신 양현정 감독을 만나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이야기를 담은 꽃길싸커 20은 5월부터 7월까지 약 2개월 동안 네이버TV를 통해 공개되며 누적 조회수가 15만을 넘어섰다.

“저희는 서울시립대의 유일한 여자 운동부입니다.” ‘캡틴’ 장재운(스포츠과학·16학번)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깃들여 있었다.

WFC BETA와 꽃길싸커20의 인연은 제작사인 빅픽처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며 시작됐



꽃길싸커20에 등장한 서울시립대 여자축구부 WFC BETA.

사진제공 | WFC BETA

다. 장씨와 함께 인터뷰에 응한 권진희(스포츠과학·16학번), 김한비(국제관계·14학번)씨는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나란히 입을 모았다.

같은 변화들이 이어졌다. 축구소녀들의 꽃길을 돕기 위해 많은 이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체육행정 인턴·계약직 경험 큰 도움”

엘러라! 스포츠 Job 대한체육회 이은경 주무

“영어 면접 실시...어학 능력은 필수 기관 성격 맞는 직무능력 준비해야”

대한체육회와 통합되기 전 국민생활체육회는 신입 채용 시 취준생의 스펙을 보지 않는 ‘탈 스펙’ 전형을 실시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회 기획조정부에서 일하는 이은경입니다.

-체육관련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에 흥미와 소질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이은경 주무

-통합 전 국민생활체육회 계약직 경험이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대한체육회에 입사의 직접적 계기였던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방과 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의 지원 업무를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 하였습니다.

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김봉진(킷치SC)과 지경훈(HK 레인저스 FC) 등 쟁쟁한 객원 코치들이 참여했다.

이런 손길에 힘입어 WFC BETA 역시 눈부신 성장세를 보여줬다.

WFC BETA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묻는 질문에는 ‘애증’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꽃길싸커20을 함께한 객원 코치들은 하나같이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엄지를 치켜 세웠다.

윤지영 대학생 명예기자 kksol17@naver.com

서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국민생활체육회 입사를 목표로 일하던 중 정규직원 모집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한체육회 등 체육행정 공공기관에 입사하고 싶다면?

“아무 경력없이 입사하는 것보다 타 행정기관 인턴 등을 통해 경력을 쌓고 지원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선홍 객원기자 ksh5863@sportsjoballo.com